



김민석 국무총리, 삼성전자 파업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 개최

- 정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상황 관리할 것을 지시

-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3일(수) 오전,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.
 - 김총리는 노동부장관 및 산업부차관으로부터 금일 새벽까지 진행되었던 사후조정 결과를 보고받고, 향후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.
-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후조정이 결렬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,
 -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을 지시하는 한편,
 -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 윤종호 (044-200-2375)
	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 황준하 (044-200-2376)